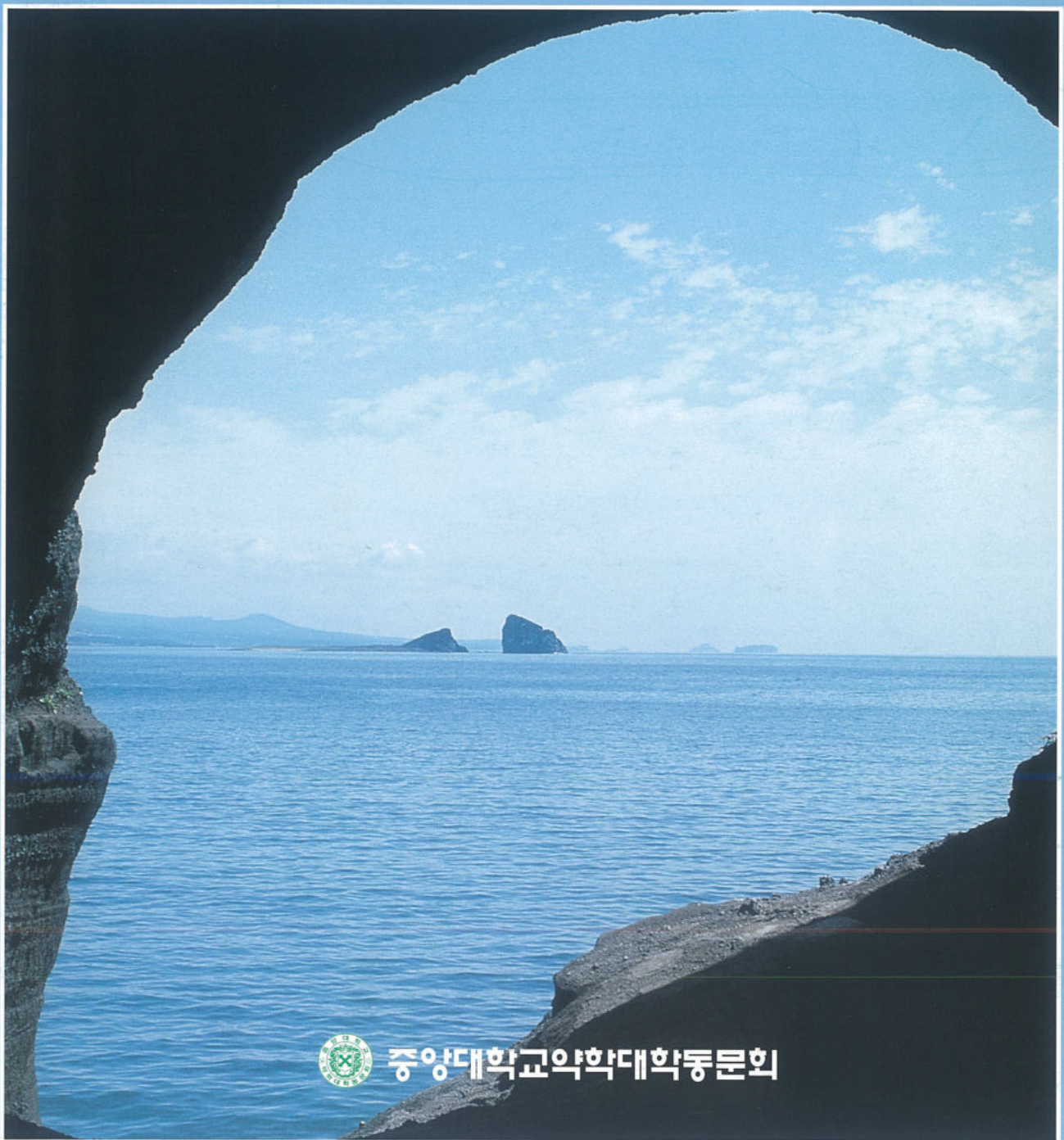


中央藥大 同門會報

여름

2004년 제16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CONTENTS

3. 시론
Wellbeing과 건강한 藥師
4. 프로필
동문회 전국 시·도 지부장
6. 동문회소식
2004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수상을 축하합니다.
최종이사회
회장단회의(2003-6차)
감사 수감
회장단회의(2004-1차)
10. 동기별소식
20회/어엿한 약학도로 거듭 태어나
12. 동기회동정
31회/입학 2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13. 후배로부터 편지
동문선배님께
14. 해외특별기고
새로운 약업을 찾아서
16. 약국도움이야기
고객이 가고 싶은 약국만들기
18. 문학산책
알롱칸 등반기
20. 별난동문이야기
내 인생의 전환기
21. 만평
외출할땐 다시 한번...
22. 인터뷰
藥師로서 자부심을 키워나가겠다
24. 알려드립니다.
25. 회원동정
28. 동문기금
발전기금·조성내역(기수별, 지부별)
32. 편집후기

Wellbeing과 건강한 藥師

황 공 용

(11회, 부회장, 편집인)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
 는 격언처럼 건강한 국민이 됨으로써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건강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藥師의
 길일 것이다.

금년 여름은 그 어느해 보다도 덥다. 섭씨 30도를 넘는 한밤중의 열기는 36.7도에 맞춰져 있는 우리 인체의 Cell의 Limit $\pm 2^\circ$ 를 가히 위협하는 온도여서 “열대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어디 자연재해 뿐인가?

20여명의 여성을 유인하여 죽이고도 태연히 재연하는 살인마의 섬뜩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하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국가 경제는 제쳐놓고 정쟁으로 치달리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의 행태가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 더욱 답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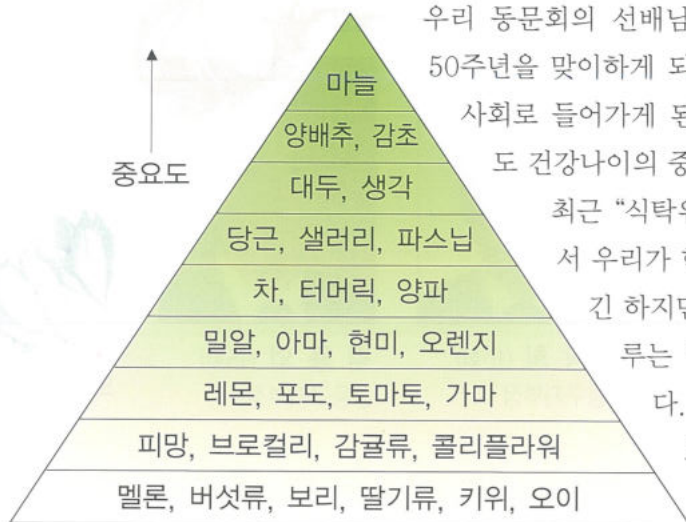
정치·경제·사회가 이처럼 어려운 사회일수록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 아니겠는가?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격언처럼 건강한 국민이 됨으로써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건강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藥師의 길일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藥師가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良藥을 통해서 건강을 찾도록 도와주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사망원인 중 1위는 1987년까지만 해도 뇌졸중 즉 중풍이었으나 1988년부터는 암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藥師들의 平均수명이 아직껏 정확하게 보고된 연구는 없지만 주위 선후배 약사들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보면 대개가 암이 그 원인이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동문회의 선배님들도 이제는 1회가(2007년이면) 졸업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며 70세를 훌쩍 넘게됨으로 인해 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는 우리 동문 약사사회속에서도 건강나이의 중요성이 새삼 대두되고 있다.

최근 “식탁위에 숨겨진 항암식품 54가지”라는 책에서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했던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음미할 만한 건강장수를 이루는 항암식품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었다. 다음의 도표는 우리가 스스로 식단에 도입하여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동문회 전국 시·도 지부장



황 문 상 (11회)
종로구지부장



조 근 태 (23회)
중구지부장



조 중 형 (18회)
동대문구지부장



양 희 익 (17회)
성동·광진구지부장



신 상 직 (17회)
도봉·강북구지부장



김 영 덕 (7회)
성북구지부장



김 정 남 (10회)
서대문구지부장



윤 주 섭 (8회)
은평구지부장



이 관 하 (12회)
마포구지부장



김 중 환 (17회)
용산지부장



이 호 섭 (12회)
구로·금천지부장



오 상 동 (20회)
강서·양천지부장



조 기 현 (16회)
동작구지부장



윤 대 봉 (14회)
강남구지부장



이 현 희 (22회)
서초구지부장



정 세 희 (23회)
송파구지부장



문 재 빈 (13회)
관악구지부장



원 장 희 (15회)
중랑구지부장



김 용 의 (15회)
강동구지부장



김 성 지 (17회)
노원구지부장

“동문회 결속의 선봉장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강응모 (18회)
수원시지부장



김대희 (17회)
인천시지부장



황태선 (9회)
평택시지부장



현기원 (27회)
안양·군포·의왕시지부장



최민규 (26회)
안산시지부장



임형균 (24회)
부천시지부장



김상각 (18회)
파주시지부장



노석준 (12회)
강원도지부장



임유재 (13회)
대전시지부장



박주영 (16회)
대구시지부장



김정길 (11회)
부산시지부장



박기진 (14회)
제주시지부장



김철수 (22회)
성남시지부장



상병준 (9회)
시흥시지부장



신성희 (19회)
고양시지부장



방용남 (23회)
천안시지부장



곽유환 (8회)
용인시지부장

김병무 (21회)
광명시지부장

김승렬 (18회)
미주시지부장

2004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가 사당동 소재 중앙대학교 동문회관 4층 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본회 임상묵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총회에서 동문회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단축된 후 처음맞은 1년 동안 대한약사회를 비롯 각 시도 약사회장 선거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으나 이제 남은 1년 임기동안에는 동문회 지부 조직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 하겠으며 앞으로 2004년 회기에는 전 동문이 동문회비 납부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밝히고 전동문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장을 대리하여 최영욱 학장의 총장치사 및 학장축사가 있었으며 총동창회의 성대석 부회장이 격려사를 통해 약대동문회가 중앙대학교 동창회 중 가장 모범적이고도 활성화적인 동문회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갑, 손동헌 명예교수를 비롯 최영욱 학장과 교수진들이





최영욱
학장



성대석
총동창회 부회장



윤주섭
감사

자리했으며 서울시 약사회 권태정 회장을 비롯 타 약대 동문회 임원(서울대, 이대, 숙대, 덕성, 동덕, 성균관)들이 참석하여 총회를 축하해 주었다.

김경오 총무(19회)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에서는 공로패 수여 후 만찬으로 제1부를 마치고 이어 속개된 제 2부에서는 최영욱 학장의 약대발전기금 19억 돌파 조성 현황보고 및 학교내 신축될 약학관 모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윤주섭 감사가 감사단을 대표해 감사보고를 마치고 2003년 세입세출결산 및 2004년 예산 106,980,904원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10월의 개교 86주년 모교의 날 행사에 명랑운동회를 겸한 체육대회 및 홈컴밍데이행사를 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총장을 대리하여 최영욱 학장의 총장치사 및 학장축사가 있었으며 총동창회의 성대석 부회장이 격려사를 통해 약대동문회가 중앙대학교 동창회 중 가장 모범적이고도 활성화된 동문회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 김 석 자(3회) 동문 : 총장 공로패 수상



▲ 권 혁 구(9회) 동문 : 총동창회장 공로패



▲ 황 태 선(9회) 동문 : 학장 공로패



▲ 이 창 오(27회) 동문 : 동문회장 공로패

▶ 총장공로패	김석자(3회) 나을약국	임완호(6회) 풍전약품
▶ 총동창회장 공로패	권혁구(9회) 일산대학약국	이대윤(10회)
▶ 학장 공로패	황태선(9회) 태선약국	강옥희(12회) 동화약국
▶ 동문회장 공로패	손영복(8회) 도봉·강북지부 : 새종당약국	
	강윤구(8회) 송파지부 : 아시아약국	
	김화식(10회) 평택지부 : 동성약국	
	김기명(18회) 서초지부 : 극동약국	
	한성엽(24회) 구로·금천지부 : 태평양약국	
	황규진(24회) 강남지부 : 주민약국	
	김영후(26회) 수원지부 : 메디신월드약국	
	이창오(27회) 안산지부 : 안산프라자약국	



약학대학 동문회 이사회



최종 이사회

총회를 앞둔 2003년 최종이사회가 지난 4월 17일 오후 6시 선능역 소재 상제 리제뷔페 갤러리홀 2층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3년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총회 일자 결정의 건 등 총회에 부의할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회장단 회의(6차)

- △일 시 : 2004년 3월 6일
- △장 소 : 동문회관
- △안 건 : 1. 최종이사회 개최의 건
2. 회비의 건
3. 기타 토의 건



감사 수감

- △일 시 : 2004년 5월 10일 4시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임상목(8회) 회장, 홍병석(5회), 김영일(7회), 윤주섭(8회) 감사, 김경오(19회) 총무



회장단 회의(1차)

- △일 시 : 2004년 6월 19일 6시
- △장 소 : 동문회관
- △참석자 : 1. 2004년 월별사업계획의 건
2. 동문회관 활용의 건
3. 기타토의 건

어엿한 약학도로 거듭 태어나



김 현 태
(20회, 동기회장)

우리는 1972년에 입학하였습니다. 양희은의 “아침이슬”, “이루어질 수없는 사랑”, 김세환, 서유석의 통키타 시대인 70년대, 그해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월남전이 막바지로 가는 와중에 국내에선 1월 유신이 있었던 국내외적으로 매우 변혁기였다고 기억됩니다. 경제는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 이후 수출약진을 노력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대학생활이 시작되었으며, 그 해부터 예년보다 많은 120명이 입학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현대적인 약학발전의 선두에 있었던 역사와 전통의 모교의 교훈 “의에 죽고 참에 살자”라는 가르침은 우리입학생 모두에게 인간의 삶에 대한 지혜를 일깨워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빡빡한 강의 일정은 낭만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짐을 지게 하였지만, 어엿한 약학도로 거듭 태어나게 함으로써 약사 사회 발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유기화학의 명명식시험에 진땀을 흘렸고, 생약과 미생물의 학명을 외우느라 몇 밤을 지새웠는지, 실습 레포트에 해 넘어 가는 줄 모르며, 지긋지긋한 재시험에 울먹이며, 낙제를 모면키 위해 고심했던. 그러나 기타 코드 배우느라 손끝에 물집이 생기고, 미팅에 열심히 참여 하느라 농땡이 부리고, 바람 맞으면서도 기다리던 10월 축제와, 사랑할 수 밖에 없었

던 그 젊음 들...

이렇듯 어려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생살을 마치고, 사회에 나선 우리 동기생은 여러 방면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 학문을 계승발전 시키는데 헌신하는 동기생들이 있고 (허문영 박사:(전)강원대 약학대학 학장, 김형춘:강원대 약학대학 교수, 이상일 박사:한영제약 상무이사, 박기배 박사:일산시약사 회장, 경기도약사회 부지부장)

제약회사에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최석중:환인제약전무이사, 한경우:한국신약 대표이사, 전구석:일동제약 마케팅부문 이사)과 종합병원 및 보건의료공직에 계신 분들(강혜옥:고신의료원 약제부장, 이영희:인천기독병원 약제과장, 유하송:국립공주정신병원 약제과장)과 그리고 또한 약학을 교양 삼아 다른 한 의사나 의사로 변신하신 분들(정병희:한 의사 민태형:의사 항공의료원)도 있습니다.

특히 약사사회의 중간지도자, 관리자인 분회장을 했고 또 현재 분회장을 맡고 열심히 약사회발전에 헌신하며, 많은 동료, 선후배약사들로부터 신뢰받는 동기생들(이극선:안양시약사회장, 유영내:강서구 약사회장, 이호선:금천구 약사회장, 최인걸:동해시 약사회장, 배성진:사하구 약사회장, 송열호:부산진구 약사회장, 조진환:포천시 약사회장, 김현태:(전)수원

시 약사회장, 이신규:(전)안양시 약사회장, 송창수:(전)화성시 약사회장, 박광우:(전)여주시 약사회장 박지순:(전)오산시 약사회장, 정동천:(전)안성군 약사회장, 구장림:(전)칠곡군 약사회장, 우영각:(전)원주시 약사회장)이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약사, 사업가로서 활동하고 계신분(김윤채:LA약국 경영, 강현남:LA사업, 이원영:뉴욕약국경영, 뽀니뽀니해도 주민 건강을 책임지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개국동기생들이 대다수입니다.

20회 동기회는 1대 이극선(안양시 대림약국), 2대 김홍진(성동구 혜민약국)을 거쳐 제가 3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졸업 10주년, 졸업 20주년, 입학 30주년 행사를 차질없이 개최하였으며, 지난 2002년 입학 30주년 행사는 중앙대학교 박명수 총장님과 총동창회와 함께 제1회 홈커밍 대회로 치렀습니다. 이 모임에서 십시일반으로 입학 30주년을 뜻깊은 행사로 간직하고자, 30년 후배인 2003학년도 신생 3인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던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경제는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 이후 수출약진을 노력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대학생활이 시작되었으며, 그 해부터 예년보다 많은 120명이 입학하였습니다.

현대적인 약학 발전에 선두에 있었고 역사와 전통의 모교는 매우 학구적이었고, 게다가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가르침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지혜를 일깨워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는 2006년에는 은사님을 모시고 졸업 30주년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소식 몰라 못 만났던 친구들 이번에는 꼭 만납시다.

그리고 저희 동기생이 주축이 되어 골프동회인 청룡회를 월례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골프에 관심있는 많은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과학 특히 BT, IT, 약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좀더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약학과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강합시다!

우정을 나눕시다!

우리 20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83학번 입학20주년 기념행사

2004년 5월 22일(토) 7시

JW Marriott Hotel 3층



입학 2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이 성 표
(31회, 동기회장)

1983년, 스물 안팎의 나이에 처음 만났던 우리들은 불혹의 나이가 되어 20여년만에 다시 만났다. 조금씩 생긴 흰머리와 잔주름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얼굴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추억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거닐던 흑석동 캠퍼스는 세월의 부피만큼이나 모습을 달리했지만 그 속에서 숨쉬던 우리의 정열은 그대로 남아 서로에게 기쁨이 되었다. 오랜만에 약사라는 직업의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보고픈 이들을 만나는 설렘이 뒤섞여 무척이나 흥분된 하루였다.

정년퇴임을 하시기도 여전히 그 때의 모습을 간직하신 교수님들을 보니 코끝이 찡해왔다. 게다가 변하지 않은 그분들의 목소리는 마치 20년 전의 강의실에 앉아있는 듯 생생하게 들려왔다. 말씀하실 때의 몸짓조차 너무나 똑같아서 우리들은 공감의 웃음을 터뜨렸다.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문득문득 그리움으로 다가서는 얼굴! 가슴 한 칸에 아련히 남아 해묵은 사진첩을 들추듯 꺼내 보고픈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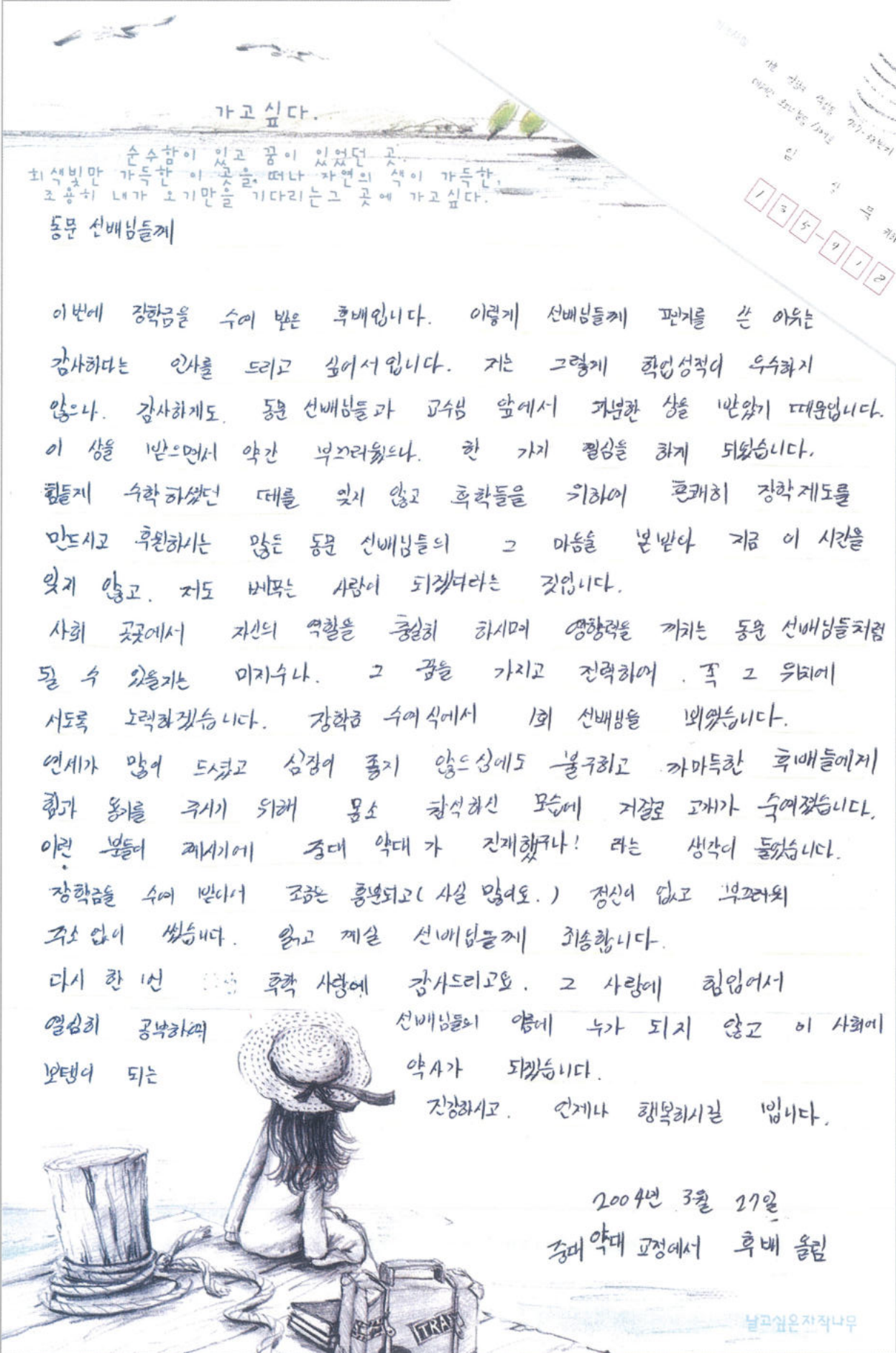


의 조각들... 스무 해 전에 품었던 희망을 지금쯤은 이루었을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은 학창 시절과 변함이 없었다.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는 금세 20대의 순수한 젊음이 되어 웃고 떠들었다. 멀리 부산, 창원, 울산, 대구, 대전 등등에서까지 우리들의 만남을 위해 달려온 친구들! 참석을 하지 못해 아쉬워하며 다음을 기약하던 친구들! 짧은 만남을 안타까워하며 헤어질 때는 더욱 끈끈한 정이 흘러 넘쳤다. 지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친구들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많은 꿈을 안고 약학대학을 다녔고 이제 그 꿈들을 완성하기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31회 우리 동기들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중앙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가고 싶다.

손수함이 있고 꿈이 있었던 곳.
 회색빛만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 자연의 색이 가득한,
 조용히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곳에 가고 싶다.

동문 선배님들께

이번에 장학금을 수여 받은 후배입니다. 이렇게 선배님들께 편지를 쓴 이유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않으나, 감사하게도 동문 선배님들과 교수님 앞에서 기념한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을 받으면서 약간 부끄러웠으나, 한 가지 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수학하셨던 때를 잊지 않고 후학들을 위하여 흔쾌히 장학제도를 만드시고 후원하시는 많은 동문 선배님들의 그 마음을 본받아 지금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저도 베푸는 사람이 되겠노라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며 영향력을 끼치는 동문 선배님들처럼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나, 그 꿈을 가지고 전력하여, 꼭 그 위치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회 선배님을 뵈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고 심장이 좋지 않으신에도 불구하고 카마득한 후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몸소 참석하신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런 분들께 제사기에 증대 약대가 진게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학금을 수여 받아서 조흔 흥분되고(사실 많네요.) 정신이 없고 부끄러워 주소 없이 씁니다. 왕고 제을 선배님들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후학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열심히 공부하여 선배님들의 양에 누가 되지 않고 이 사회에 약사가 되겠습니다.

진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04년 3월 27일
 증대 약대 교정에서 후배 올림

서울대학교출판부

자랑스런 중앙약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 군복무를 마친 다음 선배 약사님으로부터 2년간의 약국 실무를 배웠다. 그리고 나서 아내와 함께 약국을 개업했다. 그 뒤 약 7년 동안 나름대로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며 약사로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신비로웠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도전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하고 있는 약사업이 '소명을 따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러한 질문에 충실하게 대답하기 위해 매일 경건한 마음으로 약국업무에 임했다.

해외특별기고

새로운 약업을 찾아서



김 상 현 (31회)
약학박사/목사

그렇게 약국에서 아내(원종숙, 동문 83학번)와 함께 한참 약국 업무가 익숙해 질때에, 약대 재학 중 친구의 전도로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소명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의 소명에 대하여 재 점검을 하게 되었다.

길지 않은 삶을 살다가 육체의 기간을 마감하게 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루실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졸업 후 약국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막연한 소명의식이었는데, 30대 중반을 지나면서 희미했던 소명의식이 분명해 지기

시작한 것이다.

약국에서 약사로서 만족해 하며 살아가는 일도 크게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안주하려는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새롭게 솟아난 것이다.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소명을 깨닫고 마음과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가 말했던가 '20대에는 의미 없는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30대에는 소명을 따라 움직이며, 40대에는 사역 철학을 가지고 일(사역)을 하며, 그리고 50대에는 균형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고 말이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나누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이 없이 잔잔하게 살아가던 우리 가정에 잔잔한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물결이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신약 성경 로마서 12: 2)". 아내는 나의 변화를 위한 신앙적 결단에 대하여 역시 깊은 신앙으로 격려해 주었다. 아내와 함께 정들고 몸에 익숙해 있던 조제실과 약국 업무를 정리하고 1997년 2월 1일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켄터키대학 약대 (University of Kentucky College of Pharmacy)로 날아왔다. 대학캠퍼스에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낳고 기르기 위한 전 단계로 좀 더 깊은 학문을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그 곳에서 좋은 미국인 교수와 함께 신약개발 연구 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다. 연구 경험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실력과는 관계 없이 많은 연구자들이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미국신약 특허를 선물로 주셨다(특허번호 6,074,674). 그 때가 2000년 6월이었다. 켄터키 약대의 좋은 연구 시설과 여건 속에서 앞서가는 약학을 접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수많은 세계 유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나의 눈에는 그들이 모두 '새로운 약업'을 위한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구약 성경을 전하는 사역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에는 전 세계에서 유학하러 온 학생들이 꽤 많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 내에 약 60만의 세계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켄터키 주만 해도 약 6천명의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이렇게 세계적인 인적 자원들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매일 근무시간 이후에 열심히 뛰었다.

그러나 연구와 복음 전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개인적인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약업’을 위해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것은 ‘새로운 전문 약업’인 ‘신약, 구약(성경의 신약 구약을 말함)업’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자 고민 끝에 다시 아내와 신앙적인 의논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하던 ‘약업’ 보다는 ‘새로운 약업’, 즉 ‘신약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의외로 아내는 나를 격려해 주었다. 언젠가는 이 때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던 듯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과 함께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아내의 동참 의사와 함께 약간은 두려운 마음으로 신학 대학원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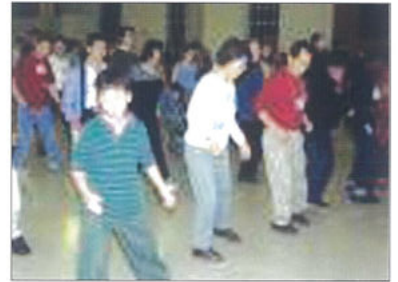
결국, 1999년 가을 학기에 미국 남침례신학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게 되어 좋은 신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곳에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위한 신학적인 준비를 하며 실제로 미국 대학 내에서 성경을 들고 예수님

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보람이었고 소명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었다. 지금은 University of Louisville (Louisville, Kentucky 소재)에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은 어학연수생들에게, 매주 목요일은 공과 대학 유학생들에게, 매주 금요일에는 메디칼 캠퍼스 학생과 연구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며 동시에 성경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새한장로교회)와 세계 유학생과 영어에 더 익숙한 한인 1.5세나 2세들을 위한 International Alliance Fellowship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대학 캠퍼스 사역을 통한 세계 선교에 좀 더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 근처에 인터내셔널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선교센터를 겸한 세계 선교 센터를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비전 중 하나이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지역교회 목회와 더불어 더욱 세계유학생들을 키우는 전문 ‘신약·구약 업’에 종사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그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바로 카작스탄 미전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을 키워 세계로 내보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거나 소명을 받으신 동문 약사님들이 계신다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일꾼을 키우는 사역을 찾고 계신 동문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객이 가고 싶은 약국만들기



박 종 화

(23회, 은누리약국체인 대표이사)

몇 년 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광고 중에 “고객이 OK할 때까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미지 광고를 한 기업이 있었다. 고객이 OK, 즉 만족할 때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이처럼 언제인가부터 우리사회는 고객만족경영이 기업성공의 키워드가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토록 고객은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이며 모든 패러다임을 고객에게 중심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분업이라는 혼란을 겪은 약국가는 처방건수가 줄어든 부분을 일반 의약품의 판매라는 돌파구를 찾고 안정된 경영을 해왔다. 하지만 이젠 글로벌화라는 거대한 물살이 밀려오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약국형태인 드럭스토어가 우리나라에서도 선을 보이고 약국가에서도 드럭스토어로 바꾸기만 하면 문제없다는 분위기다. 물론 처음에야 일반약국보다는 드럭스토어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할지 모르나 시간이 흐르면서 너도 나도 드럭스토어가 되고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게 되면 고객은 어떤 기준을 갖게 될까?

물론 매월 반짝이는 이벤트와 마케팅 플랜으로 고객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없어서는 안될 것이 고객만족을 넘어선 고객감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은 어떻게 다를까?

쉽게 말해 고객만족은 고객이 가렵다는 곳을 긁어줌으로써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고 고객감동은 가려울 것이라는 예상으로 먼저 가렵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감동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고객만족은 일시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고 고객만족은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감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에서 다르다.

약국가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 고객감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첫째, 친절이다.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 인사, 복장, 용모, 전화응대 등 몇 가지 항목을 정하여 실천하도록 해보자.

실례로 서비스 강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인데 친절하게 정성껏 상담해주는 의사와 간단명료하게 진료만 하는 의사의 진료시간을 환자는 다르게 느낀다고 한다. 물론 친절함의 진료시간을 더 길게 느낀다는 것이다.

약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말 한마디라도 웃는 얼굴로 대하고 단정한 용모, 깨끗한 복장으로 맞이한다면 고객은 이 약국에서 약을 먹으면 깨끗하

이제 고객은 약국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드럭스토어로 매장을 바꾸고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약국과 차별될 수 있는 일대일 마케팅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게 나올 것 같다는 믿음과 함께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과 재방문이 오랜기간 축척이 되면서 신뢰가 구축이 되고 결국은 충성고객의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고객관리다.

약국마다 단골고객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단골이지는 않았듯이 신규고객을 단골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쉽게는 고객의 이름을 외운다든지, 지난번 구매한 약으로 인한 호전반응을 묻는다든지, 신변 잡기적인 대화 등을 통해 고객관리를 할 수 있다. 요즘은 정보시스템의 발달로 고객관리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고객을 관리하는 약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 어떤 약국은 근무직원을 자주 바꾸지 않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단골고객은 앞으로 약국과 거래하는 기간까지 가치를 둘 수 있는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셋째,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이다.

요즘 고객은 간간해졌다. 그래서 찾는 제품이 없으면 꼭 찾아서 사고야 만다. 그런 고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요구하는 품목을 구비해 놓는 것이다. HBC(Health, Beauty, Clean)제품을 골고루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원하던 제품을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 편해졌다는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 맞춰 새로운 제품을 발빠르게 취급하고 즐거운 약국이 될 수 있는 POP나 포스터 같은 마케팅 툴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은 단순한 비교구매에서 제품의 브랜드, 제품의 서비스, 제품의 이미지까지 비교하여 구매하는 행동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브랜드가 싫증나거나, 만족하지 못한 서비스를 경험했다거나,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된 제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제 고객은 약국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드럭스토어로 매장을 바꾸고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약국과 차별될 수 있는 일대일 마케팅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고객은 남들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 나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고 또 그런 곳을 즐겨 찾는다.

언제 가도 반겨주는 약국, 언제 가도 친절할 약국, 언제 가도 깨끗한 약국, 언제 가도 신뢰할 수 있는 약국을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다.

알롱칸 등반기

해발 : 8,505m



남 기 탁
(12회, 이사)

2004년 5월7일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이곳 베이스 캠프에는 정적이 감돈다.

내일이면 우리의 공격조 엄홍길, 심동섭, 하오성 군이 정상을 공격하는 날이다.

고국 기상대에서 보내준 일기예보에 의하면 앞으로 삼일동안은 비록 바람은 불겠지만 쾌청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 날씨의 어김없이 오전 맑음, 오후 눈보라, 저녁엔 점점 맑아지는 전형적인 산간날씨의 연속이다.

혹시나 부정스러울까봐 말과 행동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 조심하며 정상으로 향하는 대원들을 배려하며 전 대원들은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저녁식사 후 대원들은 각자의 텐트로 돌아가 오늘 밤을 새울 준비를 한다. 두터운 우모 상하의에 텐트슈즈와 고소모로 단단히 중무장을 하며 식당텐트엔 석유스토브와 발전을 밤새워 돌릴 준비를 단단히 한다. 새

벽2시쯤 텐트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하늘 색깔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스포츠조선 정용권 기자가 나를 부른다.

나가보니 약간 구름이 낀 붉은 색의 달빛이 비친다, 예기치 못한 월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짐짓 월식을 하는 것으로 날씨가 좋아질 징조라고 말하니 모든 대원들이 좋아한다. 새벽 2시 30분 기다리던 무전이 엄대장으로부터 온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벽 3시경 출발 한단다. 몇시간이 흘렀을까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이 심하여 심,하 두 대원이 차례로 하산을 한단다. 하산이 더욱 어려운 것이니 조심스럽게 안전 하산을 바랄 뿐이다.

산소마스크와 강풍에 시달리는 엄대장에 피해를 줄까봐서 다음날 10시가 되도록 무전도 못하고 애타게 기다리다 쿡을 시켜서 사다에게 무전을 지시하니 정상 150미터 아래에 있는데 바람이 심하고 획스된 로프도 없을 뿐 아니라 최근 10년 이상을 오른사람들이 없어 루트를 찾는 것 자체가 난제라 한다.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연속 끝에 드디어 '여기는 정상입니다' 하며 감격스러운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흐른다. 5월 8일 오후 3시 8분, 역사적인 엄홍길의 8천미터 15좌 성공 순간이다.

가수 이문세씨는 엄대장과 절친한 사이로 이번 등반길에 위로 공연차 지원조로 베이스 근방 아래에서 성공만 기다리고 있다 등정 소식이 알려지자 내일 중으로 올라온다고 한다.

유래없는 산상 5,500 미터에서 축하 음악회가 열렸다. 감격스러운 장면이 연출된다.

5월 11일은 하산하는 날이다. 하루 전인 10일 간이텐트와 침낭 행동식만을 남겨놓고 모든 짐을 정리하여 비상헬리포트인 빙하지대로 옮긴다.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모든 대원들이 집으로 간다는 희망하에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

11일 새벽 4시에 기상하여 각자의 짐을 지고 헬리포트로 가서 기다린다. 매일 오전에는 맑은 날씨가 이곳의 전형적인 것인데 오늘 따라 저멀리서 하얀 버섯같은 구름이 일기 시작하더니 삼시간에 계곡을 덮으며 헬기장을 가린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 전 대원들이 환호를 외치는데 다시 멀어진다. 영문을 몰라 불안해 하는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안개가 심하여 오늘은 헬기가 오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철수를 기정사실로 알았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대기하던 우리는 다시금 짐을 풀고 텐트를 치며 행동식으로 식사를 마치며 내일을 기다렸다.

불안한 마음에 자다깨다를 거듭한 끝에 이윽고 날이 샌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텐트를 철수하고 침낭을 정리하니 짐은 정리되었지만 추위를 견디기가 몹시 힘이든다. 오늘은 하산하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안 삼는데 멀리 남쪽 하늘로부터 구름이 일기 시작한다. 설마가 역시라고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금 돌아간다. 구 소련 구조헬기는 계기비행을 못하고 시계비행에 의지하기에 구름이 짙으면 운항이 불가능하다.

대원들의 동요가 보인다. 본대 일차 지원조 이차 지원조, 셸파키친을 합치면 37명이나 된다. 이제는 먹을 것도 거의 떨어져가고 우리가 머무르는 빙하 역시 흘러내려 안전을 장담하기 힘들다.

삼일째 되는 날 아침 우리는 회의를 가졌다. 짐은 다음에 찾아 가기로 하고 대원들만 2개조로 나누어 비상 탈출을 하기로 했다. 나는 일조로 편성되었다. 아침 8시경 헬기소리가 들리더니 다시금 멀어진다. 이제는 체면이고 예의도 없다. 위성전화에 대고 육두문자를 써가며 급박상황을 알린다.

먹을 것도 없고 환자도 발생했으며 싸이트 자체가 위험하다고 알리며 대사관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

히말라야에 직면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헬기소리가 들린다. 헬기 환청은 아닐까? 그러나 현실이다.

헬기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압벽에 거의 붙어서 헬기가 돌아온다. 반갑기도하지만 워낙에 위험한 비행이라 겁도나는 것이 사실이다.

헬기가 우리 머리위를 두번 비행하더니 기웃둥하며 내려 앉는다. 자리가 불안정하니 프로펠라를 심히 돌리며 금방이라도 날아가려한다. 헬기에 우리 일조는 각자의 비상 짐을 지고 탑승을 완료한다.

이윽고 문이 닫히며 조종사의 엄지 손가락이 세워진다. 고소의 저기압으로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헬기는 뜨지 못하고 얼음 구덩이로 미끌어진다. 절대 절명의 순간 사다리도 내리지 못하고 문을 열어 두명의 대원을 밀어 내보낸다.

헬기의 강한 바람과 얼음에 미끄러지며 두 대원은 얼음 구덩이에 쭈셔 박힌다. 가까스로 헬기는 떴지만 안개가 앞을 가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헬기는 기웃둥거리며 날아간다. 꼭 장님이 자동차 운전하는 기분이다. 우여 곡절 끝에 이부 대원들도 철수를 완료하고 우리는 카투만두 회식자리에서 축배를 들며 등정을 축하했다.

본인은 외국어대학 개교 50주년 기념 등반에 의료요원으로 참여했기에 이자리를 빌어 외국어대학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약력>** 1984년 히말라야 시바푸리등반
 1985년 일본 북 알프스 종주
 1986년 에베레스트 동계등반
 1989년 구소련 엘브르스등정
 1991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등정
 1992년 남미 아콩카구아등반
 2001년 파키스탄 K2 등반
 2003년 히말라야 횡단
 2004년 네팔 알롱칸 등반



내 인생의 전환기



장 정 수

(40회, 약사, 변리사)

안녕하세요! 여러 동문 선·후배님들. 저는 약학과 92학번 장정수입니다. 동문회의 원고부탁을 받고 글을 쓰게 되었으나 가볍게 생각했던 수락 당시와는 달리 막상 작성하려고 보니 많이 어색하고 쑥스럽군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려 합니다.

제가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처음으로 가까이 접하게 된 것이 아마 1999년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부인이자 그 당시의 여자 친구가 다니던 학원 근처에 변리사시험 준비 학원이 있었고, 친구와의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게 된 저는 변리사 시험 설명회에서 지루한 시간을 때울까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 계기라면 계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변리사가 그런 직업이구나 하는 정도였고 당시 (주)대웅제약 중앙연구소에 재직 중이었던 저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연구소에서 저희가 출원한 특허에 대한 심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미를 느꼈고, 또 실제 연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직접 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많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일과 고시공부를 병행하던 당시를 생각해보면 많은 행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모든 연구를 특허취득하고자 했던 회사방침이 열의를 유지해 주었으며 또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의 법률과목 시험 준비와 달리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약제학은 회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회사 연구의 수행자체가 시험공부였습니다. 특히 2차 시험 직전에 단백질 제제연구를 수행

하였는데 시험문제가 단백질 제제설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행운까지 겹쳤습니다. 시험 후에 (주)파이크라는 벤처로 이직하여 제제연구와 특허업무를 수행하던 중 합격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후 (주)파이크의 병역특례지정업체 취소로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로 전직하여 그 동안 수행하던 제제연구 및 특허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전문계약기업, 벤처,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두루 경험할 수 있었던 행운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필&온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로서 여러 고객들을 상대로 특허관련 업무를 대리하다 보니 폭 넓은 부분을 배워야 하는 약학이라는 전공과 과거 연구원으로서의 경험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변리사에 대한 인식과 실상이 매우 다른 것이 사실이며 많은 후배들이 걸모습만 보고 도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자체가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하고 실수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사 의뢰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문의 일이라면 더 많이 안타깝고 더 많은 정성을 들이게 되는데 그런 것이 동문이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비록 많은 동문들과 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지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으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동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출할땐 다시 한번...

有始者必有終
 시작이 있으면 끝이있다
 참여 〇〇



破釜沈船

술을 깨뜨려 다시는 밥을 짓지 않고
 결사항전으로 임(臨)함

김기명(18회, 본지 편집위원)



김형수
(15회, 이사)

“약사로서 구청장이 되는 것이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藥師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에 더 깨끗할 수 있으며 투명한 구정을 통해 2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藥師로서 동료나 후배들의 자부심을 키워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藥師로서 자부심을 키워나가겠다

지난 6. 5재보궐 선거에서 김형수 동문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서울 영등포 구청장에 당선됐다. 영등포 구의회 의원으로 구의회에 진출한 후 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구의회 협의회장을 역임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김형수 동문은 55.7%의 높은 지지율(득표수 3만 8251표)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영등포구 약사회장과 서울약사 신협 이사장을 역임한바 있는 김형수 동문은 藥師사회와 지역사회에서 모두 인정 받음으로 해서 中央藥大 동문을 빛내는 또 한사람의 동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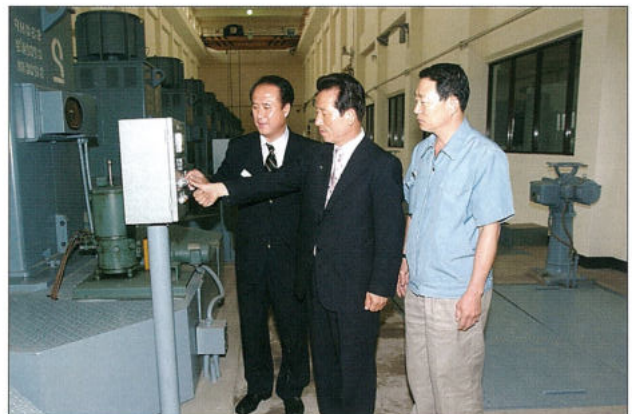
평소 영등포지역 동문회를 중심으로 藥師會에 많은 애착과 기여를 해온 결과로 이번 선거에서 동문 선후배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받았고 이로 인해 13일 밖에 앓되는 선거기간이었지만 “투명한 구정을 이

루기 위해 달라져야 한다”는 구민들의 바람이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표명하는 김형수 구청장은 “약사로서 구청장이 되는 것이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藥師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에 더 깨끗할 수 있으며 투명한 구정을 통해 2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藥師로서 동료나 후배들의 자부심을 키워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형수 구청장은 영등포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세부내용을 통해 과거 종로·명동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변화가로 꼽혔던 영등포를 다

시 살리기위해 OB맥주·크라운맥주·방립방적 등 대단위 공장이 이전한 후 그 부지위에 컨벤션 센터·호텔·대형쇼핑몰 등 첨단도시로 변혁을 통한 “재





도약의 발판을” 임기중 마련하겠으며 특목고를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의도를 축으로 하는 관광벨트 개발 및 관광컨텐츠 사이트 운영으로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윤중로 벚꽃 행사를 지역 축제화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문화 활동의 장을 신장시키겠다는 포부를 펼쳤다.

특히 겉치레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실리행정으로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를 통해 藥師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김형수 동문의 야심찬 의욕에 中央大 藥大 6천 동문들의 갈채를 보내며 기대한다.

(글정리 편집실)

2004년 회비현황

(2004년 5월 15일~2004년 8월 7일까지)

〈회장단회비 : 24만원〉

임상묵(8회), 조의환(8회), 김돈기(8회), 허근희(8회), 권혁구(9회), 이규진(9회), 박호일(10회), 유정새(10회)

〈이사회비 : 12만원〉

박정배(6회), 남기탁(12회), 구종모(14회), 임영식(15회), 강응모(18회), 제갈희(23회)

〈일반회비 : 2만원〉

2회 : 정인장 3회 : 김기동, 현영철
 8회 : 정현숙, 문홍수 15회 : 정육주
 25회 : 권세형 28회 : 조승찬
 31회 : 최윤실 39회 : 전병선
 46회 : 김윤경

장학금 수여식

모교 교수 세미나실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본 동 문 회 (7,000,000)	700,000	약학2	정 윤	3.97
	700,000	제약2	조 제 업	3.68
	700,000	약학3	김 유 리	4.02
	700,000	약학3	유 혜 연	4.02
	700,000	제약3	김 지 수	4.07
	700,000	제약3	임 태 종	3.64
	700,000	약학4	배 종 구	3.78
	700,000	약학4	김 원 호	3.76
	700,000	제약4	육 성 업	3.35
	700,000	제약4	정 형 조	3.47
영등포동문회 (1,000,000)	500,000	제약2	이 성 훈	3.97
	500,000	약학3	김 진 우	3.80
부 산 동 문 회 (1,000,000)	500,000	제약3	김 유 정	4.05
	500,000	약학4	김 태 훈	3.66
여 자 동 문 회 (1,000,000)	500,000	약학2	문 예 지	3.97
	500,000	제약4	곽 은 영	3.78
ROTC동문회 (500,000)	1,000,000	약학4	박 진 석	2.19
한미약품(주) (3,376,0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합 계 : 13,876,000				

첫째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동문회 조기를 제작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문들의 상가에 조기를 보내어 동문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정중하게 위로도 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우리 동문회에서 조기를 제작하였으나 보관 관리가 어려워 분실 훼손되었던 문제를 금번에 시행하는 업체는 직접 정중하게 상가를 방문하여 조기를 설치함은 물론 발인 후에 조기수거와 보관까지를 일체 관리하는 용역업체입니다.

본 동문회로 연락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동문회 사무실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동문회관인 테헤란 오피스텔 1307호는 25평형 두개를 튼 것으로 월 50여만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으나 평상시에는 간사인 박실장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동문들의 각종 소모임 장소로 적극 개방을 하고 아울러 강의실로도 렌트해주시기로 결의했습니다. 따라서 동문회관이 명실공히 동문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동문제약업소와의 공동사업입니다.

약국경기의 침체로 모든 동문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 동문회의 활성화와 동문들의 약국경영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또 우리 동문 제약사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문제약사는 삼성제약으로 8회 박번일 동문이 CEO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여러가지로 어려웠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이때에 우리 전국 5000여 동문들의 성원으로 큰 힘을 얻어 재기에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국내 살충제시장의 원조인 에프킬러상표를 매도한지 5년만에 삼성킬러라는 이름으로 금년에 늦게나마 살충제 시장에 다시 합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소 늦었지만 동문들께 소개하는 차원으로 특가에 선을 보입니다. 그리고 천삼 드링크는 미국에 수출하던 품목을 우리 동문만을 위하여 특별히 생산 출하합니다.

우리 동문과 삼성제약의 윈윈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다른 품목들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사

• 3월 5일 성남지부 모임 : 김철수(22회) 지부장



• 6월 17일 8회 동기회 임원모임 : 동문회관



• 3월 26일 병원약사위원회 : 김승업(11회) 회장



• 6월 18일 시흥시지부모임 : 상병준(9회) 지부장



• 3월 29일 동암약의상 시상식 : 약국부분 한석원(8회) 회장



결혼

- 4월 16일 박호일(10회) 부회장 자녀결혼
- 4월 24일 김춘근(4회) 이사 자녀결혼
- 5월 1일 임철부(6회) 교수 자녀결혼

• 6월 5일 부산지부 정기총회 : 남기탁(12회) 지부장
안건 : 임원선출(김정길(11회) 신임회장, 김상현(24회) 신임총무)

부음

- 3월 16일 이규진(9회) 부회장 부친상
- 3월 21일 성열호(3회) 이사 모친상
- 5월 7일 조길도(14회) 이사 부친상
- 5월 26일 김명기(6회) 이사 부친상
- 7월 18일 임철부(6회) 교수 빙모상



인사

- 6월 7일 김형수(15회) 이사 영등포구청장 당선

2003학년도 2학기 임용

구조개편
신임교수
대폭충원
계획

발전하는
약학대학 모습.
2004년
2학기에도
교수 두분 임용
예정 심사중...



황 광 우

【학 력】

1. 1987~1991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B.Pharm.)
2. 1992~1995 일리노이 공대 (M.S.)
3. 1995~2000 일리노이 공대 (Ph.D.)

【주요경력】

1. 1995~2000 일리노이공대 실험 강의조교
2. 1994~1995 일리노이 공대 연구조교 (Air Force Project)
3. 2000~2003 시카고대학교 의대 면역학 선임연구원

【담당과목】

1. 생물기초약학
2. 신경면역학



한 상 범

【학 력】

1. 1986~1990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졸업 (B. Pharm.)
2. 1990~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약품분석화학전공 (M. pharm.)
3. 1994~1998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약품분석화학전공 (Ph.D.)

【주요경력】

1. 1996~1997 서울대학교 조교
2. 1998~2000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강사
3. 1998~2003 서울의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담당과목】

1. 약품분석학
2. 기초약품화학

2004학년도 1학기 임용



이 재 휘

【학 력】

1. 1985~1989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B.Pharm.)
2. 1989~1991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약제학전공 (M.Pharm.)
3. 1996~2000 University of Wales 약학대학 약제학전공 (Ph.D.)

【주요경력】

1. 1989~1991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조교
2. 1991~1996 (주) 대웅제약 중앙연구소 제제연구팀 선임연구원
3. 2000~2003 Purdue University 약학대학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4. 2003~2004 Akina, Inc. (Purdue Research Foundation Company), Principal Scientist

【담당과목】

1. 제제학
2. 약물송달학



최 형 균

【학 력】

1. 1985~1989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B.S.)
2. 1989~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식물생명공학전공 (M.S.)
3. 1991~1998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식물생명공학전공 (Ph.D.)

【주요경력】

1. 1992~2003 삼양제비스 생명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
2. 1997~1997 UC Davis (USA) 방문연구원
3. 2002~2003 Leiden University (The Netherlands), 박사후연구원
4. 2003~2004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전임강사

【담당과목】

1. 식물바이오테크놀로지
2. 생약학

2004년도 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2003년 결산안, 2004년 사업계획안·예산안, 회칙 개정안 등 통과

2004년도 동창회 정기총회가 6월 19일 오후 3시 모교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는 성대석(정외 14) 동창회 상임부회장과 박명수 모교 총장, 백낙원(법학 4), 김순영(법학 4), 배용수(정외 15) 등 전 동창회장과 김기홍(약학 8) 고문 그리고 이재오(경제 19), 이군현(외국어교육 27) 국회의원 동문과 전북지부 조재익(국문 24) 회장, 광주전남지부 신영수(화학 21) 부회장 등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2백3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모교 제1캠퍼스 종합시설계획 확정 발표

창학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18년 모교 모습이 확 달라지게 됐다.

모교는 최근 지난 2000년에 발표됐던 장단기 발전계획 vision 21과 DRAGON 2018계획을 종합해 모교 제1캠퍼스 종합시설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모교 제1캠퍼스는 장기 계획형 캠퍼스와 도심형 고밀도 캠퍼스, 친환경 그린 캠퍼스, 보행자 중심의 열린 캠퍼스 그리고 학생 중심의 캠퍼스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 개교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18년에 이 같은 캠퍼스를 완성한다는 것, 한편 제2캠퍼스 종합시설 계획은 올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 고교생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중앙대

진학사 설문조사 전국 52개 고등학교 대상 작년에도 인기지원대학 1위

전국 고교생이 국내에서 가장 가고 싶은 대학으로 모교 중앙대학교를 꼽았다. 이와같은 사실은 진학사가 전국 52개 고등학교 학생 1만6천백72명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진학 희망대학 순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교 중앙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다. 모교는 인문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 두 부문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서 인문계 고교 학생들에

게 국내 4년제 대학 중 가장 선호하는 대학으로 선정 전국1위에 올랐다. 또한 실업고 수험생들은 모교를 5위에 선정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문계 고대부고외 28개교 1만4백96명, 실업계 부산여상 외 22개교 5천8백7명 등 인문계와 실업계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2004년도 입학점수 큰 폭 상승

작년보다 5점이상 올라... 지원자 수도 전국 1위

모교 입학처가 지난 3월 18일 발표한 2004년 신입생 입시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04년도 신입생 입학점수는 총 4백점 만점의 수능점수를 모교 입학요강에 따라 가산점을 적용하여 2백80점 만점으로 환산한 입시점수로 살펴보면 제1캠퍼스의 경우 합격자 vudrs 점수가 인문계열 신문방송홍보계열이 248.67점, 자연계열 의학부가 224.0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제2캠퍼스는 인문계열 문예창작학과 229.57점, 자연계열 의류학과 214.06점, 예체능계열 사진학과 227.341점 순이었다. 이같은 점수는 지난해 보다 평균 5점 이상이 상승한 것이다.

한편 입학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수가 전국 대학 중 1위로 총 지원자 수는 2만7천3백29명으로 고려대 1만5천9백명, 한양대 2만5천7백84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문기금 |

발전기금 조성 내역(기수별)

총 19억 4천 2백 3십 만 원 (2004년 7월 19일 현재)

교 수 총 15,300 만 원

〈교내〉 최영욱(1,000), 임철부(1,000), 염정록(700)
 김창중(500), 김미영(500), 이도익(500)
 이민원(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손의동(500), 천영진(500)
 김종갑(500), 손동현(500), 이광표(500)
 홍순각(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황광우(500), 한상범(500), 이재휘(500)

〈타교〉 오유진(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한성순(100), 임세진(300)

학 생 총 5,350 만 원

동문회장단 총 19,000 만 원

유영후(1,000), 조의환(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정재일(500), 이기안(500), 임상목(500), 박숙자(500),
 김연희(500), 이규진(500), 박호일(500), 유정사(5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열(500),
 김승재(500), 김중성(400), 김승태(400), 정찬현(4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홍(300)

단체 기부 총 1,570 만 원

- 중삼친목회(300) • 미주(L.A.) 3회 동기회(5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7회 동기회(500)
- 7회 약우회(박숙자 외 11명)(120)

학부모 및 기타 총 400 만 원

- 한충강('02 한인빈 학부모, 300)
-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 100)

개인·부부동문 총 152,610 만 원

기수별 통계 (단위 : 만 원)

- 〈1회〉 손동현(500), 오유진(300), 이광표(500), 홍흥만(300)
- 〈2회〉 고두흔(박명자 부부, 700), 서화택(500), 홍순각(500),
 황인규(300), 황재수(100), 한성순(100)
- 〈3회〉 김석자(300), 김용욱(50,000), 조영만(이정자 부부,
 50), 한만우(1,000)
- 〈4회〉 김기호(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천흥기(300), 허인회(500)
- 〈5회〉 박명자(고두흔 부부, 700), 이송학(300), 이해석·강태일
 부부(1,000)
- 〈6회〉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종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환(300), 유상열(300), 이준장(100),
 임철부(1,000), 추의호(300), 홍병석(300)
- 〈7회〉 강승안(500), 김영일(300), 김옥남(500), 김정부(300),
 김정웅(300), 김정재(300), 박명신(300), 박숙자(500),
 박옥규(300), 유영후(1,000), 유윤재(300), 이기황(1,150),
 이기안(노신희 부부, 500), 이능세(300), 이양현(500),
 이준종(60), 인고길(300), 임종홍(300), 정재일(500),
 이정자(조영만 부부, 50), 차승현(300), 한철희(300)
- 〈8회〉 김연희(500), 김형미(500), 문옥자(300), 박찬수(300),
 신현우(100), 윤주섭(300), 이백천(1,000), 이조열(300),
 임상목(500), 정재용(300), 조의환(1,000), 한석원(500),
 허근희(300)
- 〈9회〉 김영부(500), 노신희(이기안 부부, 500), 상병준(300),
 서황석(500), 이규진(500), 이근배(100)
- 〈10회〉 김삼균(300), 박호일(500), 방순환(12,000), 서정목(300),
 유정사(500), 이대윤(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승수(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 〈11회〉 김승업(300), 김창중(500), 민대식(300), 박상희(300),
 박찬희(300), 이철규(50), 정덕호(500), 최옥출(100),
 황공용(500), 황문상(500), 홍금자(남기탁 부부, 500)
- 〈12회〉 강옥희(500), 김 구(500), 김초성(100), 남기탁(홍금자

부부, 500), 노덕재(300), 박영찬(1,000), 염윤기(300), 이성우(500), 이정희(300), 이호섭(300), 최병호(300)

<13회> 김신미(10), 김종성(400), 박동규(300), 문재인·김애련 부부(500), 서국진(500), 안병식(1,000), 윤창현(300), 조종목(300), 이종각(박종애 부부, 500), 조성복(홍순경 부부, 500)

<14회> 김명웅(1,000), 김원순(300), 김종열(500), 윤대봉(500), 이규식(500), 정도연(1,000), 정진모(300),

<15회> 김승태(400), 김용의(300), 박석동(5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인석(300), 조찬휘(300)

<16회> 강명채(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김성광(100), 박종애(이종각 부부, 500), 이상규(300), 윤영로(200), 조기현(300), 한인희(300), 홍순경(조성복 부부, 500)

<17회> 김인형(500), 선우영환(방금숙 부부, 500), 신상직(5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장재인(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완표(300), 최해광(300), 김대회(200)

<18회> 강응모(성낙순 부부, 500), 김기명(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정명진(500), 조중형(300)

<19회> 권광일(300), 권영훈(300), 권창호(300), 김경오(500), 박효식(300), 옥태석(300), 이경욱(300), 이창욱(300)

<20회> 김영섭(300), 김종갑(300), 김현태(500), 박기배(300), 방금순(선우영환 부부, 500), 송열호(3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신규(300), 이극선(300), 이상일(500), 임구래(300), 임경원(이현숙 부부, 1,000), 정영수(300), 정찬현(4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21회> 강성무(300), 김대일(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박전희(100), 백운경(50), 어경남(300), 이규섭(300), 이세진(500), 전명선·김민숙 부부(300)

<22회> 김철수(300), 김홍진(500), 손의동(500), 오황영(400), 유대식(300), 이상돈(100), 이정석(300), 전일오(300), 정진호·강명희 부부(500)

<23회> 강호영(100), 공인호(300), 권석형(500), 김영식(300), 김항만(300), 박종화(1,000), 박희용(100), 양재업(100), 이도익(500), 이승해(300), 이원길(300), 이정대(100), 임상규(300), 임준석(300), 정덕기(300)

<24회> 김관식(500), 김상현(300), 오동근(300), 윤규형(500), 김승재(김희식 부부, 500), 윤원철(300), 이광섭(300), 이규삼(100), 이범도(300), 이영주(300), 임무호(500), 정상수(300), 조종래(500), 최영욱(1,000), 함삼균(50),

최재윤(김윤경 부부, 500), 함한성(300), 홍용기(300), 황규진(300)

<25회>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춘규(100), 김희섭(300), 성낙순(강응모 부부, 500), 손현우(300), 위성건(500), 이내홍(300), 이민원(500), 이재희(김은진 부부, 5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26회> 김안식(300), 김영후(300), 라중우(300), 문형철(300), 박재길·오옥희 부부(5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심상수(500), 이영준(300), 이종량(300), 정태형(300), 이창훈(이숙희 부부, 500), 진희역(300), 최민규(300), 황완균(500)

<27회> 안산 79학번 동교회(김덕진, 오순용, 오홍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각각 300씩 총 2,100), 곽순재(150), 김정호(300), 남상진(300), 박수길·이정아 부부(500), 박영달(300), 방만성(조순연 부부, 500), 변영신(300), 안희영(300), 양건모(300), 유기조(300), 오영돈(300), 이선애(100), 최기선(300), 현기원(300)

<28회> 김영희(300), 김윤경(최재윤 부부, 500), 김유근(500), 김희식(김승재 부부, 500), 박용석(100), 박우중(300), 양덕숙(300), 이병천(300), 이숙희(이창훈 부부, 500), 이해룡(300), 임세진(300), 임채욱(500), 전금용(300)

<29회> 강대웅(300), 강철선(300), 김영재(300), 김은진(이재희 부부, 500), 서경원(3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종운(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이준(300), 이철(300), 장우성(300), 정진호(300)

<30회> 김광식·윤기숙 부부(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서봉호(100), 신일균(300), 이민자(300), 장부자(300), 조덕희(300), 조순연(방만성 부부, 500), 천세영(300), 최병원(300), 황유세(300)

<31회> 김진홍(300), 김하형(500), 박건규(50), 변동성(300), 이현숙(임경원 부부, 1,000)

<32회> 고은미(300), 박은미(300), 조양연(300), 채영주(300)

<33회> 박재훈(240), 임희원(300)

<34회> 민성철(300), 배규환(300), 이선우(300)

<35회> 곽정근(300), 권준환(300), 황광우(500)

<36회> 방극상(50), 안영운(300), 우경애(300), 임성호(300)

<37회> 오상희(100), 정병욱(300)

<38회> 박용석(300), 박종호(300)

<40회> 한국약품(이병두, 300)

<43회> 강규태(100), 김중호(100), 신명숙(300)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모교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 부 별 통 계

서울강남구지부(총15명) 합계 : 162,000,000 4회 김현용3,000,000 7회 박옥규3,000,000 9회 이근배1,000,000 10회 방순환120,000,000 10회 정송수3,000,000 12회 이정희3,000,000 14회 윤대봉5,000,000 14회 정진모3,000,000 15회 이인석3,000,000 16회 김광식3,000,000 22회 유대식3,000,000 24회 황규진3,000,000 29회 서경원3,000,000 29회 이 준3,000,000 43회 신명숙3,000,000	13회 문재빈5,000,000 김애련 14회 김종열5,000,000 15회 박석동5,000,000 16회 이상규3,000,000 27회 안희영3,000,000 서울광진, 성동구지부(총2명) 합계 : 6,000,000 17회 양희익3,000,000 23회 김영식3,000,000 서울구로, 금천구지부(총10명) 합계 : 30,000,000 5회 이해석10,000,000 5회 강태일 6회 김경희3,000,000 12회 이호섭3,000,000 19회 이경옥3,000,000 22회 정진호5,000,000 강명희 26회 박재길5,000,000 26회 오옥희 37회 오상희1,000,000 서울노원구지부(총2명) 합계 : 5,000,000 27회 방만성5,000,000 30회 조순연 서울동대문구지부(총3명) 합계 : 11,000,000 6회 김종구3,000,000 6회 신정숙3,000,000 19회 김경오5,000,000 서울동작구지부(총6명) 합계 : 18,000,000 2회 고두흔7,000,000 5회 박명자 13회 이종각5,000,000 16회 박종애 16회 조기현3,000,000 28회 김영희3,000,000 서울마포구지부(총2명) 합계 : 6,000,000 27회 오영돈3,000,000 28회 양덕숙3,000,000 서울서대문구지부(총4명) 합계 : 16,000,000 8회 문옥자3,000,000	8회 한석원5,000,000 18회 정명진5,000,000 29회 유인석3,000,000 서울서초구지부(총9명) 합계 : 23,000,000 6회 이준장1,000,000 6회 추의호3,000,000 7회 이능세3,000,000 11회 황공용5,000,000 15회 안민철3,000,000 18회 김기명3,000,000 18회 박계환3,000,000 24회 이규삼1,000,000 27회 이선애1,000,000 서울성북구지부(총3명) 합계 : 10,000,000 15회 김승태4,000,000 15회 조찬휘3,000,000 17회 유종관3,000,000 서울송파구지부(총6명) 합계 : 24,000,000 7회 김영일3,000,000 9회 이규진5,000,000 9회 김영부5,000,000 25회 위성건5,000,000 26회 정태형3,000,000 26회 진희익3,000,000 서울영등포구지부(총5명) 합계 : 12,500,000 10회 류정사5,000,000 21회 백운경500,000 21회 김대일3,000,000 28회 전금용3,000,000 43회 강규태1,000,000 서울용산구지부(총4명) 합계 : 12,000,000 7회 박명신3,000,000 8회 이조열3,000,000 14회 하이규식5,000,000 30회 서봉호1,000,000 서울은평구지부(총9명) 합계 : 29,000,000 8회 윤주섭3,000,000 8회 임상묵5,000,000 8회 정재용3,000,000 17회 정갑진3,000,000 26회 선우일원3,000,000	34회 배규환3,000,000 35회 광정근3,000,000 36회 우경아3,000,000 37회 정병욱3,000,000 서울종로구지부(총10명) 합계 : 34,000,000 11회 황문상5,000,000 12회 강옥희5,000,000 17회 전상훈3,000,000 17회 주완표3,000,000 18회 조중형3,000,000 23회 임준식3,000,000 24회 함한성3,000,000 28회 박우중3,000,000 28회 이병천3,000,000 28회 이해룡3,000,000 서울중구지부(총2명) 합계 : 13,000,000 10회 조규동3,000,000 12회 박영찬10,000,000 서울중랑구지부(총2명) 합계 : 6,000,000 16회 한인희3,000,000 23회 정덕기3,000,000 대전시지부(총1명) 합계 : 3,000,000 21회 이규섭3,000,000 부산시지부(총18명) 합계 : 56,000,000 8회 이백천10,000,000 11회 홍금자5,000,000 12회 남기탁 12회 김초성1,000,000 14회 김원순3,000,000 19회 옥태석3,000,000 20회 차재근3,000,000 20회 송영호3,000,000 23회 강호영1,000,000 24회 이영주3,000,000 24회 김상현3,000,000 24회 조종래5,000,000 26회 백낙기3,000,000 26회 이종량3,000,000 27회 남상진3,000,000 28회 박용석1,000,000 30회 황유세3,000,000 32회 박은미3,000,000
---	--	---	---

인천시지부(총11명)
 합계 : 35,000,000
 7회 유영후10,000,000
 17회 선우영환5,000,000
 20회 방금숙2,000,000
 17회 김대희3,000,000
 17회 장재인3,000,000
 20회 윤춘수3,000,000
 21회 전명선3,000,000
 김민숙3,000,000
 26회 김안식3,000,000
 26회 문형철3,000,000
 30회 최병원3,000,000

제주지부(총1명)
 합계 : 4,000,000
 22회 오황영4,000,000

강원지부(총2명)
 합계 : 6,000,000
 7회 김정웅3,000,000
 30회 이인자3,000,000

경기고양시지부(총8명)
 합계 : 13,500,000
 4회 이연수3,000,000
 20회 박기배3,000,000
 24회 함삼균500,000
 25회 김춘규1,000,000
 25회 이재희5,000,000
 29회 김은진500,000
 31회 박건규500,000
 36회 방극상500,000

경기광명시지부(총15명)
 합계 : 53,400,000
 5회 이송학3,000,000
 7회 인고길3,000,000
 8회 김형이5,000,000
 10회 이양원3,000,000
 13회 안병식10,000,000
 21회 김병무3,000,000
 23회 공인호3,000,000
 23회 임상규3,000,000
 24회 김관식5,000,000
 27회 최기선3,000,000
 30회 장부자3,000,000
 32회 고은미3,000,000
 33회 박재훈2,400,000
 34회 민성철3,000,000
 43회 김중호1,000,000

경기부천시지부(총5명)
 합계 : 16,000,000
 26회 이창훈5,000,000
 28회 이숙희5,000,000
 28회 김유곤5,000,000

30회 김미영3,000,000
 33회 임희원3,000,000

경기성남시지부(총15명)
 합계 : 49,000,000
 10회 서정목3,000,000
 11회 박상희3,000,000
 12회 김 구5,000,000
 12회 최병호3,000,000
 17회 김인형5,000,000
 21회 강성무3,000,000
 22회 김철수3,000,000
 23회 김항만3,000,000
 24회 윤원철3,000,000
 25회 손현우3,000,000
 26회 이영준3,000,000
 27회 변영신3,000,000
 27회 유기조3,000,000
 31회 변동성3,000,000
 39회 박중호3,000,000

경기수원시지부(총15명)
 합계 : 49,000,000
 1회 홍흥만3,000,000
 7회 김정자3,000,000
 8회 신현우1,000,000
 16회 윤영로2,000,000
 18회 김청길3,000,000
 18회 강응모5,000,000
 25회 성낙순5,000,000
 20회 김현태5,000,000
 20회 임경원10,000,000
 31회 이현숙5,000,000
 21회 이세진5,000,000
 25회 이내홍3,000,000
 26회 김영후3,000,000
 29회 김영자3,000,000
 32회 채영주3,000,000

경기사흥시지부(총4명)
 합계 : 12,000,000
 9회 상병준3,000,000
 29회 유종운3,000,000
 29회 장우성3,000,000
 32회 조양연3,000,000

경기안산시지부(총16명)
 합계 : 46,000,000
 3회 김석자3,000,000
 19회 이창욱3,000,000
 24회 이범도3,000,000
 24회 김승재5,000,000
 28회 김희식5,000,000
 24회 최재윤5,000,000
 28회 김윤경3,000,000
 26회 최민규3,000,000
 27회 김덕진3,000,000

27회 오순용3,000,000
 27회 오홍설3,000,000
 27회 이상필3,000,000
 27회 이창오3,000,000
 27회 한봉길3,000,000
 27회 이현수3,000,000
 30회 박복자3,000,000

경기안양시지부(총17명)
 합계 : 47,500,000
 6회 안병한3,000,000
 11회 이철규500,000
 13회 박동규3,000,000
 17회 최해광3,000,000
 20회 이극선3,000,000
 20회 이신규3,000,000
 20회 임구래3,000,000
 20회 정찬현4,000,000
 22회 이상돈1,000,000
 27회 현기원3,000,000
 27회 박영달3,000,000
 27회 양건모3,000,000
 29회 안성진3,000,000
 29회 이 철3,000,000
 29회 손병로3,000,000
 30회 신일균3,000,000
 31회 김진흥3,000,000

경기파주시지부(총1명)
 합계 : 3,000,000
 19회 권창호3,000,000

경기평택시지부(총9명)
 합계 : 26,000,000
 2회 서화택5,000,000
 7회 김정부3,000,000
 7회 한철희3,000,000
 20회 김영섭3,000,000
 20회 최운환3,000,000
 23회 양재업1,000,000
 26회 라중우3,000,000
 27회 박수길5,000,000
 이정아

충남천안시지부(총2명)
 합계 : 4,000,000
 11회 최옥출1,000,000
 16회 김선기3,000,000

전북지부(총1명)
 합계 : 3,000,000
 20회 김종갑3,000,000

미주지부(총8명)
 합계 : 24,100,000
 3회 조영만500,000
 7회 이정자500,000
 3회 LA3회동기회500,000

9회 서황석5,000,000
 7회 김옥남5,000,000
 7회 이기황11,500,000
 7회 이준중600,000
 16회 김성광1,000,000

울산광역시(총1명)
 합계 : 1,000,000
 23회 이정대1,000,000

경기구리시(총2명)
 합계 : 6,000,000
 2회 황인규3,000,000
 25회 김희섭3,000,000

경기김포시(총1명)
 합계 : 4,000,000
 13회 김종성4,000,000

경기오산시(총1명)
 합계 : 3,000,000
 23회 이원길3,000,000

경기용인시(총2명)
 합계 : 5,000,000
 30회 김광식5,000,000
 30회 윤기숙

경기하남시(총1명)
 합계 : 3,000,000
 25회 이현수3,000,000

경기화성시(총3명)
 합계 : 9,000,000
 20회 송창수3,000,000
 22회 이정석3,000,000
 27회 김정호3,000,000

경기포천군(총1명)
 합계 : 3,000,000
 7회 차승현3,000,000

경북안동시(총1명)
 합계 : 5,000,000
 24회 임무호5,000,000

경북의성군(총1명)
 합계 : 3,000,000
 22회 전일오3,000,000

충남보령시(총1명)
 합계 : 5,000,000
 11회 정덕호5,000,000

충남홍성시(총1명)
 합계 : 3,000,000
 30회 조덕희3,000,000

세상을 바꾸는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바꾸는데는 단 한사람이면 족하다.
 그런데 그 한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문제다. 징기스칸도 진시황도 그리고 로마를 불태운 네로가
 역사속에서는 영웅적일진 몰라도 그시대 많은 백성들에게는 괴로움을 준 인물들이다.
 우리는 소박하더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한 사람을 원한다.
 우리 동문회에서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중앙약대출신 동문들을 위해 적은 것이라도
 희생할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전국 지부에서 하나둘씩 나온다면 우리 동문회의 미래는 역시
 밝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 동문들이 스스로 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명

우리 안에 그토록 엄청난 창작력과
 예술의 끼가 숨어 있는지 몰랐다.
 Daum카페에 개설된 "중앙약대 18회"
 광우군이 운영자로 있다.
 거기에서 30여년의 세월을 초월한
 우정과 그동안 못다한 숨겨왔든
 사연을 추억 얘기!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와 또는 그 시절의 음악과
 감동스런 문화를 공유하는데
 면면히 갖고 있는 그 뛰어난
 예술적감성에 경이로울 뿐이다.
 그 카페를 통해 우리 70년 입학생들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서로 인지하고 있다.
 애숙씨 성배군이 띄운 멜로디에
 젖어 때론, 운숙씨의 잔잔한 수필에
 감동되어 하루종일 취해 있어도
 아! 우리 70 매니아들은 지루해
 하지 않는다.

꿈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경조기를 제작하면서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다.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일 것이다.
 다만 언제 죽느냐가 문제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죽는다는 것은 모두에게
 기정사실이고
 그렇다치면 언제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이제껏 나와 내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남은 삶은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나누는 삶이 진정 인생의 보람이고 값어치임을
 우리 각자가 느낄 때 비로서 우리는 다른 선진국처럼
 기부문화가 정착하며 선진국의 반열에 끼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진정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리라.

〈편집위원장〉 황공용(11회) 〈편집위원〉 김기명(18회), 김경오(19회), 박희용(23회), 이준(29회)

동문여러분의 육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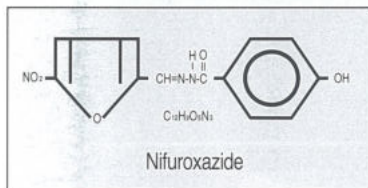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부작용이 적습니다.

지사제는 “에세푸릴”입니다.

에세푸릴®은 설사를 일으키는 병원균에 대한 선택적 살균 및 정균작용을 갖는 빠르고 안전한 지사제입니다.



■ 많은 임상 결과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에세푸릴®은 original 개발사의 원료와 기술로 제조된 제제로서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30여개국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제

제입니다.

■ 선택성이 우수합니다.

7일간 항생제 및 에세푸릴 투여후 장내 세균총의 모습

7일간 항생제 투여군

대조군

에세푸릴 투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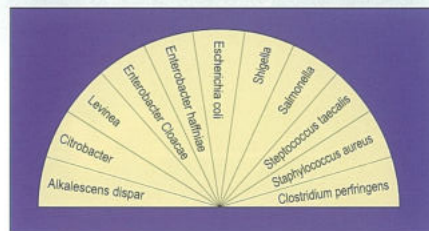
에세푸릴 투여군에서는 치료후 정상 세균총의 유의성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에세푸릴®은 Salmonella, Shigella, E.coli, Campylobacter, Vibrio comma, Clostridium 등 병원성 장내 세균에 대하여 강력하고 신속한 항균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병원성세균에 대해서만 선택적인 항균작용을 나타내 Bacteroides, Bifidobacteria, Ent-

erobacteria, Streptococci, Lactobacilli 등 100여개의 종으로 이루어진 장내 세균총을 파괴하지 않으며 세균총 균형을 신속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J. L. Avril
Etude de l'influence de l'antibiotherapie sur les resistances des enterobacteries de l'intestin, Ann. Microbial
Y. Buisson Effets du Nifuroxazide sur la coproflorance du sujet sain, Therapie

■ 강력하고 신속하게 작용합니다.



에세푸릴®은 대부분의 장내 병원균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항균작용을 나타내므로 초회투여로 급성설사를 원인적으로 빠르게 치료할 수 있

습니다. 특히 Salmonella, Campylobacter, Shigella, Yersinia, Streptococcus faecalis, Clostridium perfringens, Enterobacter에 대하여는 강력한 정·살균능력을 가집니다.

G. Garrigue
Etude de l'activite antibacterienne in vitro d'un antiseptique intestinal: Ecerfuryl 200 et suspension, Med. Prat.
R. Vanhooft, Acta Clinica Belgica

■ 소아에게도 안전합니다.



에세푸릴®은 다른 nitrofurane계 유도체와 달리 장관벽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됩니다.

따라서 전신순환에 의한 어떠한 부작용도 유발하지 않으므로 유소아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균의 내성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감수성이 떨어지지 않으며 변비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P. Lechat
Inhibition de la M.A.O. par un bacteriostatique: la Furazolidone, Proc. Eur. Soc. Study Drugs Toxicity

제조 - 판매
부광약품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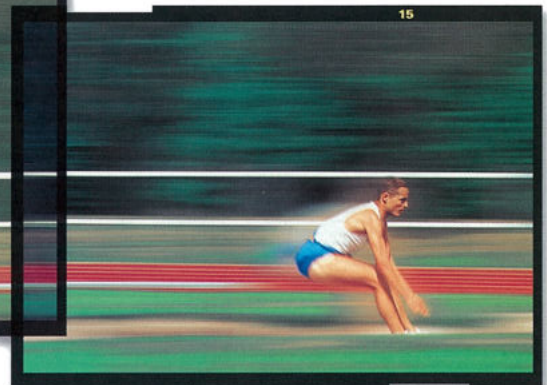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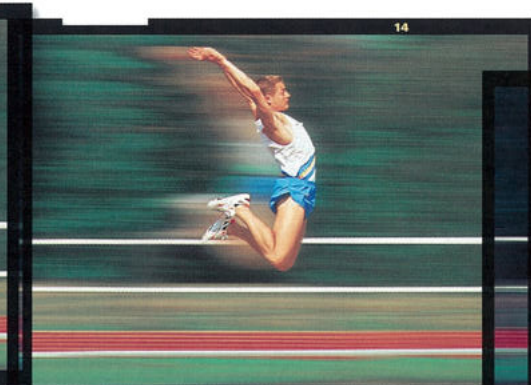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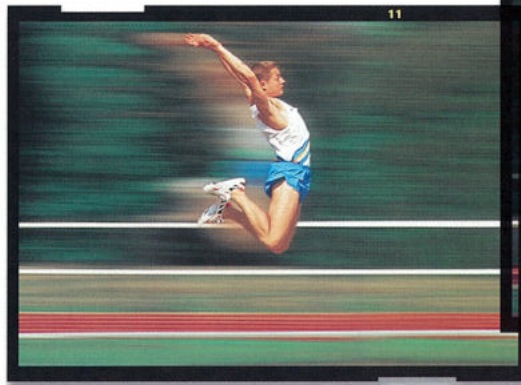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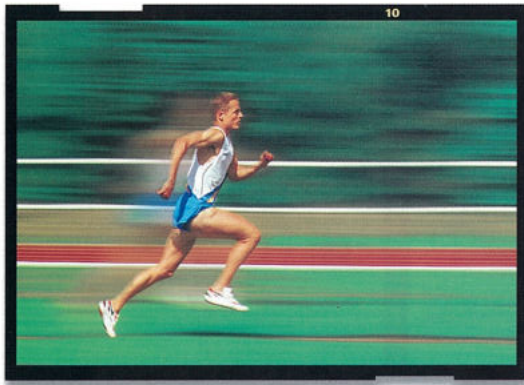
제1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4-4
제2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70

[전국 연락처] 서울 : 본사 (02)8288-114

부산(051)645-2232 • 대구(053)742-2233 • 대전(042)257-0881 • 청주(043)263-8114 • 광주(062)372-8114 • 전주(063)285-6507 • 인천(032)431-3737 • 수원(031)890-8114
마산(055)251-3431~3 • 원주(033)743-4474 • 제주(064)748-4992 ■ 소비자 상담실 : TEL 080-933-2233 ■ 홈페이지 : http://www.bukwang.co.kr

“B형 간염 치료의 한계를 넘어”

한계는 없습니다. B형 간염 치료의 자신감, 헵세라



- 헵세라는 원형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YMDD 변종 바이러스까지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1,2}
 - HBeAg 상태 및 과거 치료 경험과 무관합니다.³
 - 간기능과 무관합니다.⁴
- 내성 발현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⁵
- 안전성 및 내성이 위약과 유사합니다.^{3,4}
- 하루 한알 경구 용법으로 간편합니다.

REFERENCE
 1. Ferrillo R, Hann HW, Mullner D, et al. Adefovir dipivoxil added to ongoing lamivudine in chronic hepatitis B with YMDD mutant HBV and a reduced response to lamivudine. Gastroenterology 2004;126:81-90.
 2. Peters M, Hamm H-W, Marrin P, et al. Adefovir dipivoxil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lamivudine-resistant chronic hepatitis B. Gastroenterology 2004;126:91-101.
 3. Marcellin P, Chang T-T, Lim SG, et al. Adefovir dipivoxil for the treatment of hepatitis B e antigen-positive chronic hepatitis B. N Engl J Med 2003;348:808-816.
 4. Hadziyannis S, Tassopoulos NC, Heathcote EJ, et al. Adefovir dipivoxil for the treatment of hepatitis B e antigen-negative chronic hepatitis B. N Engl J Med 2003;348:800-807.
 5. Westland CE, Yang H, Delaney WE, et al. Week 48 resistance surveillance in two phase 3 clinical studies of adefovir dipivoxil for chronic hepatitis B. Hepatology 2003;38:96-103.

원조내용증명서

• 다음제품은 원조임을 증명합니다

1987년탄생!!

세계최초 마시는삼성
우황청심원



1964년탄생!!

발포성 소화제 삼성
까스명수



1999년탄생!!

마시는비타민드링크
비타바란스 700



약사 선생님!!

삼성제약은 1929년 창립하여
국민건강 수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 최초의 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최초의 살충제
삼성킬라 F-50U 탄생



삼성
킬라®

SSP 새천년 인류건강을 위한 기업
삼성제약

대표이사/사장
삼성제약공업(주) **박 번 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8회 동문회부회장



중앙대학교교육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